

# UZU's PERSONA RESEARCH



(사진 출처 : 대학 내일)

#취뽀성공 #새동네 #새시작

#유행선두자 #동네아싸

#가성비소비자

## 우리 서비스의 페르소나

-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여 종로구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mz세대 직장인, 학생  
(<https://www.mk.co.kr/news/culture/view/2020/02/173158/>)
-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것에 익숙치 않으며 아직은 동네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짐
-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에 동네에 대해 알아갈 시간이 부족한 편
- 성공적 경험을 위한 탐색에는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면서 최대한의 만족감을 얻고 싶음
-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는 사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없음

## 페르소나가 겪고 있는 불편함/원하는것

- 새로운 동네에서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외로움을 느낌.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픈 욕구가 있음
- 서비스가 좋은 병원, 품질 좋고 가격은 싼 마트, 공부하기 좋은 동네 카페 등 생활 밀착형 정보가 필요하나, 대형 포털사이트나 SNS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믿음이 가지 않음
- 정보 공유가 활발한 지역 맘카페도 있지만, 관심사가 맞지 않는 육아 관련 콘텐츠가 대다수기에 자주 이용하지 않게 됨
- 요즘 유행하는 과자 재고가 남아있는 매장 등 우리 동네 주민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알고 싶음

## 우리 팀이 검증해야 하는 가설

- 종로구를 비롯한 대학가 밀집 지역, 원룸촌 밀집 지역들에 거주 기간이 길지 않은 mz 세대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
- mz세대 사람들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길 원하며, 이를 위해 검색 등의 작은 수고로움을 감내할 것이다
-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모종의 소속감을 느끼고 활동하게 될 것이다
- 지역 관련 정보를 얻을 경우 일반 포털 사이트나 SNS보다 지역성이 강한 커뮤니티에서 얻은 정보가 더 신뢰성 있게 느껴질 것이다

